

“덕분입니다” 세상을 현명하게 사는 한마디

포항 일월문화아카데미 특강

성담 스님(효심사 주지)

성담 스님은 서로 얽히고 설켜 세상에서 내가 잘 살려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갈등을 해결하려면 타인의 도움을 기대하기 보단, 오로지 나만 바꾸면 된다고도 했다. 타인과 나 사이의 관계를 자유자재로 끊었다 이었다 하던 스님이 법문 내내 강조한 것은, ‘덕분입니다’ 한마디였다. 세상을 현명하게 살아가는 법이 이 한마디에 담겨 있었다.

정리=배현진 기자

나만 잘하면 그만?

불교의 연기란 말은 많이 듣는 말이지만 얼른 같이 안 잡히는 단어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서로 의존한다는 말이에요. 이에 따른 결과가 나온다는 말이기에 우리는 종종무진을 줄인 말로 인과, 연기를 씁니다.

우주만유 일체의 사물이 서로 무한한 관계를 가지고 얽히고 설켜 일체화되어 있음을 가리키는 말인 종종무진(重重無盡)은 거듭거듭 인연이 다함없이 서로 의존해서 함께 간다는 말입니다.

본인의 노력과 주변의 도움으로 이 세상이 움직인다는 것을 아셔야합니다. 당연한 이야기라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이러한 세상의 이치를 깊이 한 번 생각해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위의 도움을 잘 받도록 본인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본인이 잘하면 그만이라고들 생각하는데 무게를 두는 단어를 ‘나’에서 ‘주변’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를 몰라서 고생하는 경우가 부지기수거든요.

그동안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썩 좋게 나오지 않았다면 그것은 노력을 제대로 하지 못했음을 뜻합니다. 주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하지 않고 그저 나만 노력한 것이니까요.

나부터 잘돼야 한다는 말은 내 방식대로 하라는 것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서로 갈등이 생기고 상대방의 도움을 못 받는 것입니다. 문제 푸는 방법을 당시 방법대로 하라고 하면 일은 쉽게 흘러갑니다.

여러분들은 나부터 잘 되어서 좋은 일을 많이 하자라고 원을 세우지만 이렇게 하면 주변의 도움을 받기 힘듭니다. 대신 ‘너부터 잘돼라’라는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한다면 가만히 있어도 주위에서 도움이 손길이 그치지 않겠지요. 이것을 놓치고 있기에 노력한 만큼 결과를 못 얻는 것입니다.

이타행이야말로 바른 노력

상대방을 이롭게 하는 이타행이야말로 바른 노력입니다.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세요. 예를 들어 식당을 운영하는데 반찬 좀 더 가져다 달라는 손님의 말에 당장 이의생각이 나서 아까워한다면 그 식당이 제대로 잘 될 리 없겠습니까. 실전에서 적용되는 종종무진연기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무언가 경영을 할 때도 돈없고 힘없고 기댈 데 없는 이들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최저가격, 최고품질,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의 법칙은 쉽습니다. 첫째, ‘너부터 잘되어야 한다’는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은 방법입니다. 열매가 씨라는 것만 아십시오. 여러분이 수확하고 싶은 것을 상대방에게 심는 것입니다. 대우를 받고 싶고 존중을 받고 싶다면 상대방에게 그렇게 하면 됩니다.

상대방에게 ‘덕분입니다’라고 말하세요. 이 말 속에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받들고 대우하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다섯 자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글자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글자입니다. ‘덕분입니다.’ 한테 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은 서로 의존하고 있기에 이것만 안다면 성공하기도 쉽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상대방을 존중하면 된다는 단순한 법칙만 기억하십시오.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방향과 방법이 맞아야 합니다.

“ 세상 움직이려면

나만 노력해서는 안 되

주위 도움 받을 수 있는

내가 되도록 주변 살피야

‘내가 잘돼야’ 대신

너부터 잘돼라 마음으로

내 방식 대신 내 방식 대로



성담 스님은... 봉선사 운경 스님으로부터 사미계를 수지하고 고산 스님으로부터 구족계를 수지했다. 백운산 토굴에서 수행했고 해인사승가대를 수료했다. 1993년 효심사를 창건하고 BBS라디오와 불교TV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저서로는 <행복119> <꽃과일이 맺은맛을 내는 것은 찬란한 아름다움이다> <내일은 없다> <성담스님의 확인하는 성공습관> <성담스님의 확인하는 부자연속> <성담스님의 미러하는 인생공부> 등이 있다.

말 속에 담긴 종종무진

이 세상은 인연에 의해 서로 의존해서 일어난다는 것이 연기입니다. 연기(緣起)는 연기(煙氣)같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신경쓰지 않고 우리는 연기(演法)만 잘 하면 됩니다. 늘 기쁘게 연기하는 것입니다. 씨가 열매니까 내가 기쁘게 하면 기쁜 것이 오게 마련입니다. 그 다음에 약한척, 못난척도 해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강한척, 잘난척을 너무 잘 하거든요. 이 세 가지만 하면 사는 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정초에 운세를 보러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기가 좋아지면 운이 살아나는 게 이치입니다. 손바닥과 손등이 붙어다니 듯이요. ‘올해 운이 좋겠습니까?’ 하고 묻는 건 잘못된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운이 좋아지는지를 물어야죠.

운명(運命)이란 말도 종종무진입니다. 운과 명은 서로 연계되어 있어요. 명을 알고 싶으면 운을 알면 됩니다. 그리고 운을 보려면 기(氣)를 보면 됩니다. 기는 마음과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마음을 보면 기가 살아 있는지 아닌지 알게 됩니다. 이것이 종종무진연기입니다. 마음에서 믿음과 한 세트입니다. 마음은 기와 운과 명을 움직이는 보배인데, 믿음이 없으면 마음 역시 아무 소용없습니다. 믿는 만큼 마

음을 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믿는 만큼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면 기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만큼 운이 살아나고 다시 명도 길어집니다.

천하명당자리도 내 마음을 잘못 쓰면 기운이 바뀌고 운이 바뀌어요. 감사하는 마음을 쓰면 우리 몸에 엔돌핀이 생성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덕분입니다’라고 말하면 세로토닌, 도파민 등이 나와서 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주 쉽죠. 이것을 알고 나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나구나, 내가 선택하는 대로 엔돌핀이 나오는 거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일체가 마음작용으로 창조된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갈피를 잡지 못하는 여러분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쓰십시오. 종종무진연기란 서로 의존하고 있어서 상대방이 잘돼라고 하면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내 행복이 곧 타인이 행복

그리고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옳고 그름의 시비 분별을 지워야합니다. 시비분별을 하지 않으면 명한 상태가 되겠지만 그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차츰차츰

업이 소멸되어 맑아집니다. 그러면 다시 밝아지겠지요. 명칭, 청명, 명쾌가 종종무진으로 연계되어 있기에 하나만 잡으면 다 해결됩니다. 계속 따지니까 공부 안 되는 거예요. 출렁출렁한 흉탕물을 가라앉히고 나면, 고요해지면서 송사리도 보이고 하겠지요.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한 가지 장점만 보세요. 한 가지 장점만으로도 얼마든지 잘 지내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 나머지 쳐다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아난 게 나라고 배웠잖습니까. 그럼 이 전체가 한 몸이기 때문에 전체를 쉽게 공팔, 심장, 간 쓸개 이렇게 본다면 상대방은 공팔이고 나는 심장이 됩니다. 둘은 같을 수도 없고 같으면 더더욱 안 되요. 내 마음에 들게 공팔이 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공팔은 공팔 나름대로의 기능을 해야 하고 심장은 심장 나름대로 할 일을 하겠지요. 이것이 세상을 바르게 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는 내 마음에 들도록 하라는 마음 자체를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얽혀 살아가면서 분별을 안 하기는 어렵죠. 분별하되, 한가지 좋은 점만 보고 지내면 됩니다.

분별하지 않음을 가르치는 것은 사실은 분별을 잘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마음을 썼을 때 잘 쓰라는 것이고, 칼을 쥐었을 때 맛있는 요리를 하라는 뜻입니다. 그동안 자기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분별없음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이루어나갈 때는 좋은 점 하나를 보고 사골처럼 우려먹고 또 우려먹으면 우리는 누구와도 잘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꽃과일에서 맺은 맛이 난다고 해서 잘못된 것도, 부족한 것도 아니죠. 당연한 일이고 꽃과일에 딱 맞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은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안 들 뿐이죠.

나만 행복하면 자타가 일시에 행복해집니다. 서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예요.

24시간 동안 365일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내 방식대로 숨쉬고 밥먹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부부, 친구 어느 누구도 내 방식대로 살라고 태어나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자기 방식대로 하라고 존중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내 방식을 강요하기에 화가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서로 의존하여 이루어졌다는 것만 아신다면, 인생의 여러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 사회에서 마주한 사람들에게 자신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서로 의존해서 이루어져 있는 세상이기엔 남이 아니라 나만 바뀌면 됩니다. 바꾸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모든 것이 연기같이 사라진다고 알면 됩니다. 생각도 연기같이 사라지게 ‘당신 덕분입니다’라고 하는 순간 모든 문제는 끝납니다. 상대는 이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되겠지요.

여러분의 주변 인물들은 수없는 세월 동안 끝없이 만난 이들입니다. 종종무진연기의 실화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은 한 생 두 생 인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음 생에도 만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옆 사람에게 잘해줘야 합니다. 다음 생에 만날 때는 연체 이자까지 받든지 주든지 할 거예요.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잘 하십시오.

www.dongsanbud.net

2014년 동산불교대학 44기 신입생 모집 [2년과정]

모집학과

- 불교학과 [2월 8일(토) 오후 5시 개강]
- ▶ 토요일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50명 ▶ 목요일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50명 ▶ 통신반 : 30명

1년차 과목	① 불교개론 ② 불교문화와 포교(불교미술 다도) ③ 선불교 ④ 근원불교 ⑤ 반야사상(반야심경 금강경) ⑥ 유식불교와 명상
교수진	법산 스님(학장), 최홍식 교수, 이명환 교수, 윤영수 교수, 법인 스님, 박희준 교수, 김호규 교수, 활안 스님, 최봉수 교수, 김형준 교수, 모주 스님

▶ 불교다도학과(2년) 3월 4일(화) 오후 2시
▶ 교과목 한국 차문화, 유럽차문화, 일본차문화, 중국차문화, 티-테이블세팅, 차의미학, 제다심명
▶ 모집인원 20명

▶ 불교미술학과(3년) 3월 6일(목) 오전 10시 30분
▶ 교과목 사물기분, 불화기분, 단청기분, 신중초, 보살초, 여래초, 영산화상도, 정도변상도, 수월관음도, 개별작품지도
▶ 모집인원 20명

▶ 선·명상학과(2년) 3월 6일(목) 오후 7시
▶ 교과목 1학기: 선불교, 간화선 | 2학기: 명불선 정토선 | 3학기: 초기불교, 청정도론 | 4학기: 태극명상, 립명
▶ 모집인원 30명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입학금 20만원
■ 원서교부 및 접수 : 2014년 1월 2일부터 문의 : (02) 732-1206~8
▶ 상기 과정을 졸업한 후 한국불교교육단체 연합회교사 교사서 거쳐 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 군법당 관련종사자(군종병,부사관,장교)는 전액면제 교육함.

동산불교대학·대학원
사무처 :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1(우송동 46-20, 동산불교회관)
TEL 02)732-1206~8, FAX 02)732-1207 www.dongsanbud.net

《인도 나란타대학터》

출강 및 통신 2014학년도 제23기 법사학인 신입생 모집

법사교육 신입생 모집

법사 되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모집과정	· 법사과정 · 대법사과정 · 불학연구원과정 · 불교석학과정
모집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로 후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교육기간	· 법 사 과 정 = 1년(교과목 및 불교의식) · 대 법 사 과 정 = 2년(교과목 및 법음·법패) · 불학연구원과정 = 5년(교과목 및 참가수행) · 불 교 석 학 과 정 = 2년(교과목 및 참가수행)
교육장소	· 서울 본 대학 · 부산교육원 · 제주교육원

◆ 23년의 법사양성 연륜은 대학의 위상과 교육의 신뢰에 자부하고 긍지를 갖습니다.
◆ 법사자격을 갖추고 불교 지도자로서의 신생활에 기쁨과 행복을 함께하여 보십시오.

- ① 공익법인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법사자격 범위증을 발급 받습니다.
- ② 불교학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됩니다.
- ③ 불교를 쉽게 이해 정립되도록 지도교육 합니다.
- ④ 특성화 교육으로 실시됩니다.
- ⑤ 법사품수 후 사찰·포교원 등특시 행정상 보호반도록 지원합니다.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14년 2월 21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방문·우편·팩스·메일) 부산교육원 ☎ 051-466-1959 · 제주교육원 ☎ 064-751-1959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 02)733-1959 720-1836